

# 구별된 레위인의 헌신

민수기 8:14~26

##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으면 키워 주신 부모님에게 그대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보답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첫 월급봉투를 건네며 “지금까지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봉투를 받은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거나 혹은 “네가 더 필요할 텐데 어찌 이걸 다 주느냐”라며 되돌려 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간의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는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에 응답함으로써 더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첫 열매와 삶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는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배경 이해하기】

본문은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대신해 하나님께 봉사자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14~19절).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러졌으나 살아 있는 제물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져 회막에서 봉사했습니다. 레위인은 정치적·문화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회막과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의 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3:13)는 표현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제사장 직분의 전조이자 예표로 이해됩니다. 레위인의 구별됨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히 7:23~25). 나아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벧전 2:9)이라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레위인의 역할과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앙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대신해 레위인을 구별하셨나요?(16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을 대신해 레위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고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초태생은 하나님 구원의 표식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향해 ‘내 것이라’라고 선포하시며,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돕고 성막에서 섬기게 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되고 정결해야 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나타냅니다. 구약 시대 성도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 성도는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골 1:15)이자 많은 형제 중 맏아들(롬 8:29)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 줍니다.

## 적용과 나눔 I

**가정과 일터 등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여길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지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랑을 나누는 자, 섬기는 자 등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의 역할과 비교하며 불만을 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와 봉사의 일꾼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부름 받았습시다.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해 성막 봉사에 전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9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봉사하고 속죄하게 하여, 그들이 성소 가까이 올 때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게 하십니다. 그들의 봉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직을 보조하며 성막의 모든 일에 헌신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레위인들의 중재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헌신이 공동체 전체의 복에 이바지했음을 시사합니다. 레위인들의 구별된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 적용과 나눔 II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와 봉사의 일꾼이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영적 보호자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획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행하는 작은 실천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공동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